

국내 상장기업 감사의 성별이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

락 정**·조영곤***

초 록

여성은 남성과 상이한 가치, 태도 및 성향을 가지며 여성 고유의 가치, 태도 및 성향이 기업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장기업의 감사(내부감사기구)의 성별 특성이 기업의 자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상장기업 중 감사를 설치한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에서 2018년 기간 동안 기부금 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감사가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제조 기업에서 여성감사는 남성감사에 비해 기부금 지출 수준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속변수인 기부금 지출 수준을 매출 대비 기준, 자산 대비 기준, 종업원 인당 기준 등 3가지 수준으로 측정된 실증모형에서 모두 일관되고 유의미한(1% 및 0.1% 수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결과는 이타적이고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여성이 감사로 선임되는 경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의 자선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기업의 내부감사기구로서 설치된 감사를 대상으로 감사의 성별 특성이 기업의 자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그간 여성이사 또는 여성경영자에 제한되었던 관련 연구의 실증 대상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를 한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 대기업의 여성이사 선임 의무제 도입이 예정된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관련 정책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갖는다.

주제어 : 감사, 여성감사, 감사위원회, 자선활동, 기부금, 사회적책임활동

* 본 연구는 2020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 제1저자: 상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박사과정(luojing7013@hotmail.com)

*** 교신저자: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ygcho@smu.ac.kr)

I. 서론

상법상 내부감사기구(Statutory Internal Auditor)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하고, 이사 및 회사에 대한 조사 권한(상법 412조)을 갖춘 회사의 필수적 기관으로 자산 규모에 따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¹⁾.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루어진 내부감사기구는 주주를 대표하여 경영자와 주주 간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회사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활동을 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은 남성과 다른 고유의 가치, 태도, 성향 등을 가진다는 인지 심리학과 행동 경제학적 논의와 함께 개인의 가치, 태도, 성향 등 의사결정자의 특성이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최고경영진(Upper echelon) 이론을 바탕으로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로서 감사의 성별(여성감사의 존재 여부)이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분석을 목표로 한다(Appuhami & Tashakor, 2017; Bravo & Reguera-Alvarado, 2019; Finkelstein, Hambrick & Cannella, 2009; Hambrick & Finkelstein, 1987; Jia & Zhang, 2011; Schwartz & Rubel, 2005)²⁾.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장기업의 감사의 성별이 기부금 지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의 부족을 보완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이 가진 이타적이고 공동체적 가치와 성향에 기초하여 이 사회의 성별 다양성(여성이사의 참여 또는 여성이사의 비율) 또는 경영자의 성별(여성CEO 또는 여성임원의 비율) 특성이 기부금 지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연구가 축적되고 있는 반면, 감사위원회의 성별 구성(감사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또는 그 비율) 또는 감사의 성별이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Appuhami & Tashakor, 2017; Bravo & Reguera-Alvarado, 2019; Ibrahimi & Angelidis, 1994; Wu et al., 2019).

-
- 1)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일정한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하며(상법 제542조의10),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상법 제542조의11)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상법에서는 일정액 이상의 자산 규모의 주식회사에 한정하여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회계법인(또는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외부감사 제도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감사와 구별하여 위해 '내부감사기구'라 칭한다.
 - 2) 상법(제542조의10)에서 기업은 1인 이상의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다수의 기업에서 1인의 감사를 지정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감사의 성별(2인 이상의 경우 여성감사의 존재 여부)이 기부금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둘째, 내부감사기구를 포함한 기업의 지배구조는 국가별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경영과 감독이 통합된 영미식 제도(one-tier system)와 경영과 감독이 구조적으로 분리된 독일식 제도로 대별된다(two-tier system). 미국 기업에서는 업무집행과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이 통합된 일원적인 이사회 체제하에서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감시·감독하는 하위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두는 반면, 독일 기업에서는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회와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감독위원회가 분리된 이원적 형태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내부감사기구는 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자산 2조 이상의 대기업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미식 제도와 독일식 제도의 절충 형태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간의 국내기업의 내부감사기구와 기업 의사결정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부 연구가 진행되어 온 반면(고대영·김문태·윤순석, 2007; 김미옥·김기범·박경원, 2017) 국내 다수의 상장기업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감사(임자영, 2018)³⁾의 특성이 기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박재형·이호영,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사를 설치한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의 성별이 기업의 자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그간 여성이사 또는 여성경영진에 제한되었던 의사결정자의 성별과 관련한 실증 연구의 범위를 국내 다수의 기업에서 설치하고 있는 감사를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부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업보고서에서 감사의 성별 정보가 공개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수집하고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간의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등기이사 또는 임원의 성별 특성이 기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의 제약으로 인해 이들의 성별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측정 상의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김용수·오웅락, 2017; Kim et.al., 2017). 본 연구에서는 사업보고서에서 감사의 성별을 공시한 시점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선행 연구의 부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3) 2017년말 기준으로 상장기업에서 내부감사기구로서 감사를 설치한 기업의 비중은 76% 임.

II. 선행 연구 및 연구 가설

인지 심리학과 행동주의 경제학 등에서 여성은 남성과 상이한 가치, 태도, 성향, 인지적 기반을 갖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Alonso-Almeida, Perramon & Bagur-Femenias, 2017; Eagly, Johannesen-Schmidt & Engen, 2003; Schwartz & Rubel, 2005). 이들의 논의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윤리적이고 이타적이며 타인의 필요와 복지에 공감하며 관심을 갖는 공동체적 성향을 가진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높은 사회 지향성을 가진다 (Alonso-Almeida, Perramon & Bagur-Femenias, 2017; Marz, Powers & Queisser, 2003; Schwartz & Rubel, 2005). 한편 최고경영진(Upper echelon) 이론에 따르면 의사결정자의 가치, 태도, 성향 등은 의사결정의 대안을 도출하고 최적 안을 선택하는 과정과 선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Finkelstein, Hambrick & Cannella, 2009; Hambrick & Finkelstein, 1987).

이타적 가치를 중시하고 공동체적 성향과 높은 사회 지향성을 갖춘 여성 의사결정자(여성이사, 여성경영자 등)는 기업의 자선 활동과 사회적책임활동을 촉진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Adams & Funk, 2012; Marquis & Lee, 2013; Mesch, 2009; Schwartz & Rubel, 2005; Williams 2003; Wu et al., 2019).

다수의 실증연구에서 이러한 논의가 확인되고 있다. 이사회에 여성이사의 참여는 공동체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기부금 지출을 증가시킨다. 여성경영자는 남성경영자에 비해 기업의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참여시 보다 많은 기부금을 지출한다(Bond, Harrigan & Slaughter, 2014; The Center for Women's Business Research, 1999). 한편 최고경영진의 성별 구성이 기업의 자선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여성경영진의 비중이 클수록 기부금 지출이 증가함을 제시하여 관련 논의를 지지하고 있다(박철형·조영곤, 2020; Marquis & Lee, 2013; Wu et al., 2019).

유사한 맥락에서 여성이사와 여성경영자는 사회적책임활동 추진에 적극적인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사회적책임활동의 분석 차원은 실증연구별로 상이하지만 전반적으로 여성이사는 사회적책임활동을 촉진하는 영향으로 확인되었다(Byron & Post, 2016; Mallin & Michelon, 2011; McGuinness, Vieito & Wang, 2017). 일레로 바이론과 포스트(Byron & Post, 2016)는 선행 연구들의 메타 분석에서 여성이사가 사회적책임활동 추

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Borghesi, Houston & Naranjo, 2014; Huang, 2013; Manner, 2010).

최근 박철형과 조영곤(2020)의 연구에서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임원이 많을수록 기부금 지출이 증가하는 결과를 제시하여 여성의 성 평등 수준이 높은 서구 기업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온 관련 논의가 여성의 성 평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기업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이타적 가치를 중시하고 공동체적 성향을 갖는 여성 의사결정자(여성이사와 여성경영자)는 기업의 자선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필요에 부응하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사회적책임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Byron & Post, 2016; Mallin & Michelon, 2011; McGuinness, Vieito & Wang, 2017).

이사회와 성별 다양성(여성이사의 참여 또는 비중), 경영자(또는 경영진)의 성별(여성 CEO, 여성임원)이 기업의 자선 활동과 사회적책임활동에 미치는 실증 연구는 축적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성별 구성(여성위원의 비중) 또는 감사의 성별(여성감사)이 기업의 자선 활동이나 사회적책임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다(락정·조영곤, 2019; Appuhami & Tashakor, 2017; Bravo & Reguera-Alvarado, 2019; Jia & Zhang, 2011).

감사(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재무적 보고 활동에 대한 감시를 통해 경영자와 외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키는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서서 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에 대한 감시를 포함하도록 감사(감사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일례로 재무 보고의 투명성과 질적 제고를 목표로 하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의 공시를 감시하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궁극적으로 감사(감사위원회)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Appuhami & Tashakor, 2017; Jamali, Safieddine & Rabbath, 2008; Kolk & Pinkse, 2010).

감사위원회의 성별 구성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중이 클수록 감사위원회는 보다 높은 수준의 외부감사를 요구하여 재무제표의 질을 높이고(Pucheta-Martinez, Bel-Oms, & Olcina-Sempere, 2016; Thiruvadi & Huang, 2011) 감사보고서 상 핵심 감사 이슈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는 등 외부감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Velte, 2018).

감사위원회의 성별 구성과 사회적책임활동 공시와 관련하여 브라보와 레구에라-알바라도(Bravo & Reguera-Alvarado, 2019)는 감사위원회에서 여성 위원이 많을수록 사회적책임투자(ESG)에 관한 공시의 질이 증가함을 제시하였고, 아푸하미와 타샤코르(Appuhami & Tashakor, 2017)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여성위원이 많을수록 사회적책임활동(CSR)의 공시 수준이 증가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감사위원회에서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인 성향을 가진 여성위원이 많을수록 감사위원회에 의한 사회적책임투자와 사회적책임활동에 대한 감시가 증가하고 관련 활동이 촉진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기업의 감사회의 성별 구성과 사회적책임활동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에서도 감사회의 여성감사 비중이 클수록 지배주주의 대리인 비용이 감소하고(Jia & Zhang, 2011), 사회적책임활동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락정·조영곤, 2019).

국내기업의 감사위원회의 설치 여부는 자발적 공시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김미옥·김기범·박경원, 2017) 국내기업의 감사위원회의 성별 구성이나 감사의 성별이 기업의 자선 활동이나 사회적책임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선 활동은 개인의 평판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감사는 기업의 자선 활동에 적극적일 수 있다(Haniffa & Cooke, 2005; Mallin & Michelon, 2011). 이타적이고 공동체적 가치와 성향을 가진 여성감사는 기업의 자선 활동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다. 감사의 성별이 기업의 기부금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직접적인 실증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여성의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인 성향에 대한 논의와 감사위원회의 여성 참여가 기업의 사회적책임투자와 사회적책임활동의 공시를 촉진시킨다는 실증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종합할 때 여성감사는 기업의 자선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1. 여성감사의 존재와 기부금 지출 간에는 정(+)의 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표본 및 자료

본 연구에서는 여성감사가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내부감사기구로서 감사를 설치한 국내 상장기업 중 제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⁴⁾. 2013년도 말 여성의 임원 승진과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의 임원 현황표에 임원의 성별 표기를 추가하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에서는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의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중 ‘등기임원 현황’에서 감사를 포함한 등기임원의 성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⁵⁾. 본 연구에서는 표본 기업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패널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단년도 자료를 이용한 횡단면 분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실증모형 구성에 있어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기 위해 1년간의 시차를 설정하여 최종 1,031개 기업의 3,666건의 관측치를 이용하였다. 감사의 성별 자료와 함께, 기부금 및 기업의 재무 자료는 상용 DB인 TS2000 자료를 이용하였다.

2. 실증 모형 및 변수 정의

국내 상장기업의 여성감사가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기부금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참조하여 실증 모형을 구성하였다(박철형·조영곤, 2020; Marquis & Lee, 2013; Wang, Reimsbach & Braam, 2018).

실증모형: 기부금 지출 수준 $_{it+1} = \beta_0 + \beta_1 * \text{여성감사존재}_{it} + \beta_2 * \text{지배주주 지분율}_{it} + \beta_3 * \text{사외이사비율}_{it} + \beta_4 * \text{연구개발집약도}_{it} + \beta_5 * \text{광고집약도}_{it} + \beta_6 * \text{기업규모}_{it} + \beta_7 * \text{부채비율}_{it} + \beta_8 * \text{경영성과}_{it} + \beta_9 * \text{감사2인이상}_{it} + \nu_{it}$

4) 대부분 기준에 따른 업종 구분 시 여성감사의 비중이 ‘0’인 업종이 다수 존재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실증 결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본을 제조업으로 한정하고 업종중분류 수준에서 산업 효과를 통제하였다.

5) 상용 DB인 TS-2000에서는 등기임원의 성별 정보를 2014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종속변수인 기부금 지출 수준의 측정은 매출액 대비 기부금 또는 자산 대비 기부금, 종업원 1인당 기부금 등 선행연구에 따라 상이하나 실증 결과의 강건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3가지 모두를 이용하였다(박철형·조영곤, 2020; 조영곤·유병우, 2017; Li, Song & Wu, 2015; Zhang, Rezaee & Zhu, 2009).

독립변수인 여성감사존재는 더미변수로서 감사가 1인인 경우 감사의 성별이 여성일 때 (감사가 2인 이상의 경우 여성감사가 존재하는 경우) '1'의 값을 부여하였다. 기업의 기부금 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 요인으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무형자산 그리고 재무 특성변수를 도입하였다. 소유·지배구조 변수로서 지배주주 지분율과 사외이사 비율을, 기업의 무형자산 변수로서 연구개발비와 광고선전비를, 그리고 기부금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재무특성 변수로서 기업규모, 경영성과, 부채비율을 통제하였다(조영곤·유병우, 2017; Li, Song & Wu, 2015; Navarro, 1988; Wang, Reimsbach & Braam, 2018).

기업의 소유구조 요인으로서 지배주주 지분율은 기부금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기부금 지출에 대한 지배주주가 부담하는 부분이 증가하므로 과도한 기부금 지출을 억제할 유인이 증가할 수 있다. 한편 지배주주는 자신이 많은 지분율을 갖는 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기부금 지출을 촉진할 수 있다. 지배주주 지분율은 1대 최대주주 보유 지분율로 측정하였다. 사외이사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선활동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책임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이 클수록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자선 활동으로서 기부금 지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

기업의 무형자산은 기부금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기업이 무형자산을 많이 가질수록 기부금 지출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유인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무형자산으로 연구개발비와 광고선전비를 통제변수로 도입하였다.

기업의 규모,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 재무적 특성은 기부금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부금 지출에 대한 제도적 압력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증가하므로 이러한 제도적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총자산의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기업규모를 통제하였다. 채권자에 의한 경영 감시가 증가할수록 기부금 지출이 감소할 수 있고 높은 경영성과는 기부금 지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를 고려하기 위해 감사 2인 이상 여부를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제조업 내 세부 업종별 기부금 지출 수준은 업종 중분류 더미변수를 도입하여 통제하였다. 실증모형에 투입된 변수의 측정은 <표 1>에서 정리하였다.

<표 1> 변수의 정의

구분		정 의
종속변수(t+1)	기부금 지출 수준	- 매출 대비 기부금 - 자산 대비 기부금 - 종업원 1인당 기부금
독립변수(t)	여성감사존재	여성감사가 존재하는 경우 '1' 인 더미 변수
통제변수(t)	지배주주 지분율	1대 최대주주 주식 수 / 총 주식 수
	사외이사 비율	사외이사 수 / 총 이사 수
	연구개발집약도	연구개발비 / 매출액
	광고선전집약도	광고선전비 / 매출액
	기업규모	총 자산의 로그 값
	부채비율	부채 / 자본
	경영성과	자산영업이익률(영업이익/총자산)
	감사2인이상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1'의 더미 변수
	산업더미	제조업 중분류 기준 더미 변수

IV. 분석 결과

1. 기초 분석

<표 2>에서는 실증분석에 투입된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표본에서 여성감사는 평균 1.74% 수준으로 동일 시점의 500대 상장기업의 여성임원의 평균 3.6%(매일경제, 2019.7.25) 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여성의 감사 선임 가능성이 여성의 임원 선임보다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감사가 2인 이상인 표본은 11%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 변수의 기술 통계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부금(매출 대비)	3,666	.0628	.1776	0	1.6491
기부금(자산 대비)	3,666	.0379	.0900	0	.8049
기부금(종업원 당)	3,666	317.9275	956.3089	0	9914.225
여성감사존재	3,666	.0174	.1309	0	1
지배주주 지분율	3,666	27.1328	14.4979	0	90.4300
사외이사 비율	3,666	.2772	.1301	0	.8333
연구개발집약도	3,666	3.6287	23.8023	-.1822	861.8583
광고선전집약도	3,666	.6240	2.8189	0	127.2748
기업규모	3,666	18.6605	.9104	15.5206	21.4156
부채비율	3,666	37.5622	20.5790	.1055	235.3389
경영성과	3,666	2.8491	8.4511	-84.3788	55.2981
감사2인이상	3,666	.1107	.3138	0	1

〈표 3〉에서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기부금(매출 대비), 기부금(자산 대비)과 기부금(종업원 인당)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연구개발집약도와 광고선전집약도 간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것을 제외하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우려할 만한 높은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3〉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 기부금(매출)	1										
(2) 기부금(자산)	.787**	1									
(3) 기부금(인당)	.790*	.743**	1								
(4) 여성감사존재	.095**	.108**	.052**	1							
(5) 지배주주지분율	.029*	.039*	.058**	-.022	1						
(6) 사외이사비율	.038*	.046**	.050**	-.012	-.000	1					
(7) 연구개발비	.125**	-.002	.019	-.010	-.030	-.054**	1				
(8) 광고선전비	.176**	.101**	.054**	.046**	.019	-.023	.348**	1			
(9) 기업규모	.075**	.130**	.179**	-.033*	.078**	.213**	-.108**	-.014	1		
(10) 부채비율	-.109**	-.055**	-.085**	-.028	-.086**	.086**	-.053**	-.070**	.136**	1	
(11) 경영성과	.037	.122**	.100**	.028	.134**	.010	-.187**	-.069**	.206**	-.266**	1
(12) 감사2인이상	.021	.031	.000	.165**	-.023	.062**	.001	.020	.109**	.036*	.010

주) * $p < 0.05$, ** $P < 0.01$

2. 패널 토빗 분석

여성감사가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패널 토빗(Tobit) 모형을 이용하였다. 기부금 지출의 최소값이 '0'이고 표본의 27%가 '0'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종속변수의 분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도록 회귀계수 추정에 있어서 토빗 모형을 이용하였다. 토빗 모형 추정에 있어서 합동 자료와 패널 자료 간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LR 검증을 실시한 결과 패널 자료 형식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⁶⁾.

〈표 4〉에서는 종속변수의 측정 방법별로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형과 가설 검증을 위해 여성감사의 더미 변수를 추가한 모형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실증모형(모형 1-1, 모형 2-1, 모형 3-1)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지배주주 지분율은 일관되게 기부금 지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패널 토빗 분석

기부금 측정 구분	매출 대비(모형 1)		자산 대비(모형 2)		종업원 인당(모형 3)	
	모형 1-1	모형 1-2	모형 2-1	모형 2-2	모형 3-1	모형 3-2
지배주주 지분율	.0004 (.0002)	.0004† (.0002)	.0002† (.0001)	.0002† (.0001)	3.5073* (1.4110)	3.5722* (1.4088)
사외이사 비율	.0097 (.0240)	.0122 (.0240)	.0096 (.0122)	.0107 (.0121)	34.2443 (129.5396)	46.7012 (129.4321)
연구개발비	.0004*** (.0001)	.0004*** (.0001)	-.0000 (.0000)	-.0000 (.0000)	1.3933* (.6859)	1.3997* (.6850)
광고선전비	.0022* (.0010)	.0022* (.0010)	.0008 (.0005)	.0008 (.0005)	.7139 (5.6275)	.5613 (5.6217)
기업 규모	.0157*** (.0047)	.0164*** (.0047)	.0087*** (.0024)	.0092*** (.0024)	149.6801*** (25.8952)	152.7446*** (25.8687)
부채 비율	-.0006*** (.0001)	-.0006*** (.0001)	-.0000 (.0000)	-.0000 (.0000)	-2.6367** (.9792)	-2.6342** (.9777)
경영 성과	.0003 (.0003)	.0002 (.0003)	.0006*** (.0001)	.0006*** (.0001)	2.9025 (1.9260)	2.6405 (1.9267)
감사 2인이상	.0239** (.0086)	.0186* (.0087)	.0040 (0043)	0.0001 (.0044)	-20.6580 (46.5698)	-42.5896 (47.2363)
여성 감사존재	-	.0804*** (.0228)	-	.0578*** (.0115)	-	331.476** (123.0166)

6) 패널 토빗 모형에서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경우 최우 추정량이 편기되고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따라 변동효과 모형을 이용하였다(Greene, 2002)

기부금 측정 구분	매출 대비(모형 1)		자산 대비(모형 2)		종업원 인당(모형 3)	
	모형 1-1	모형 1-2	모형 2-1	모형 2-2	모형 3-1	모형 3-2
상수	-.1883* (.0928)	-.2031* (.0924)	-.0759 (.0469)	-.0868† (.0467)	-2288.065*** (500.5466)	-2351.143*** (500.0798)
업종 더미	투입	투입	투입	투입	투입	투입
연도 더미	투입	투입	투입	투입	투입	투입
관측치	3,666(1,031)	3,666(1,031)	3,666(1,031)	3,666(1,031)	3,666(1,031)	3,666(1,031)
Log likelihood	1783.4046	1789.5789	4259.0138	4271.4088	-29664.1	-29660.474
Wald chi2	193.72***	208.03***	178.67***	205.89***	157.40***	165.32***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10, * p<0.05, ** p<0.01, *** p<0.001

본 결과는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지배주주는 자신의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업의 자선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외이사는 기부금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무형자산 특성으로 연구개발집약도는 종속변수의 측정 방법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부금 지출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기업의 무형자산이 많을수록 자선활동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선행 연구의 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광고선전집약도는 기부금을 매출 대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실증 연구의 표본이 제조업으로 제한되어 기업의 광고선전 활동이 중요한 다수의 산업이 표본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기업의 재무 특성 변수로 기업규모와 부채비율은 일관되게 기부금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성과 변수는 종속변수의 측정 방법에 따라 유의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부금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는 경영성과는 기부금 산정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감사 2인 이상의 더미 변수는 기부금 지출 수준에 일관된 유의적인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가설 검증을 위해 여성감사의 더미 변수를 투입한 실증모형(모형 1-2, 2-2, 3-2)의 분석에서는 여성감사는 종속변수의 측정방법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수준과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본 결과는 여성감사는 남성감사에 비해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인 가치를 중시하므로 기업의 자선 활동을 통해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⁷⁾.

7)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동일 시점으로 측정한 실증 모형에서 종속변수를 매출 대비 기부

〈표 5〉에서는 감사의 상근 여부에 따른 여성감사의 영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산 1,000억원을 기준으로 2개의 하위 표본으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상근 감사의 하위 표본(모형 1-2, 모형 2-2, 모형 3-2)에서 여성감사는 종속변수의 측정방법에 관계없이 기부금 지출에 일관되고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수준과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표 5〉 패널 토빗 분석(감사의 상근 여부에 따른 차이)

기부금 측정 구분	매출 대비(모형 1)		자산 대비(모형 2)		종업원 인당(모형 3)	
	모형 1-1	모형 1-2	모형 2-1	모형 2-2	모형 3-1	모형 3-2
지배주주 지분율	.0003 (.0003)	.0006† (.0003)	.0004† (.0001)	.0001 (.0001)	3.6147** (1.2804)	3.9866† (2.3146)
사외이사 비율	.0138 (.0291)	.0210 (.0365)	-.0008 (.0150)	.0251 (.0197)	20.6252 (109.3552)	163.5735 (244.4612)
연구개발비	-.0005*** (.0001)	.0019*** (.0002)	-.0000 (.0000)	.0000 (.0001)	-.3642 (.5611)	4.0675** (1.2841)
광고선전비	.0046*** (.0010)	.0013 (.0031)	.0006 (.0005)	.0028† (.0016)	3.9213 (3.7604)	-8.8631 (20.2798)
기업 규모	.0277** (.0107)	.0118 (.0088)	.0128* (.0056)	.0107* (.0044)	104.2634* (40.8606)	190.8425*** (53.9852)
부채 비율	-.0005* (.0002)	-.0006* (.0002)	-.0000 (.0001)	.0000 (.0001)	-.1437 (.8468)	-4.4651** (1.7035)
경영 성과	-.0002 (.0004)	.0003 (.0006)	.0004† (.0002)	.0008* (.0003)	3.3163* (1.5326)	4.6303 (4.2242)
감사 2인이상	.0334* (.0142)	.0024 (.0107)	.0035 (.0067)	-.0071 (.0058)	45.7487 (49.1034)	-136.1192† (72.098)
여성 감사존재	-.0023 (.0298)	.1255*** (.0320)	.0082 (.0149)	.1015*** (.0172)	-40.2369 (108.8007)	689.4501*** (211.0278)
상수	-.3928* (.1939)	-.1192 (.1748)	-.1639 (.1015)	-.1153 (.0880)	-1563.771* (740.5047)	-3021.403** (1065.785)
업종 더미	투입	투입	투입	투입	투입	투입
연도 더미	투입	투입	투입	투입	투입	투입
관측치	1,604(529)	2,062(636)	1,604(529)	2,062(636)	1,604(529)	2,062(636)
Log likelihood	853.4782	1067.8434	2003.6709	2339.0733	-12248.848	-17047.455
Wald chi2	113.35***	248.65***	87.14***	167.90***	71.81***	126.07***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10, * p<0.05, ** p<0.01, *** p<0.001

금과 자산 대비 기부금으로 측정된 분석에서는 여성감사의 유의수준이 각각 10%, 1%로 감소하였고, 종업원 인당 기부금으로 측정된 분석에서는 여성감사의 유의적인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비상근 감사의 하위 표본(모형 1-1, 모형 2-1, 모형 3-1)에서 여성감사는 기부금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근 여부에 따라 감사의 업무 투입 노력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때 본 결과는 여성감사의 가치, 태도, 성향이 기부금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상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시사점

여성은 남성과 상이한 가치, 태도 및 성향을 가지며 의사결정자의 가치, 태도 및 성향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장기업의 감사의 성별이 기업의 자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상장기업 중 감사를 설치한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에서 2018년 기간 동안 기부금 지출 자료를 수집하고 여성감사가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제조 기업에서 여성감사는 남성감사에 비해 기부금 지출 수준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속변수인 기부금 지출 수준을 매출 대비, 자산 대비, 종업원 인당 등 3가지 기준으로 측정할 실증모형에서 모두 일관되고 유의미한(1% 및 0.1% 수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결과는 이타적이고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여성이 감사를 맡는 경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자선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여성감사의 선임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미래 투자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감사의 상근 여부에 따른 하위 표본 분석에서 여성감사는 상근으로 재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내부감사기구로서 감사를 설치한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의 성별 특성이 기업의 자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그간 여성이사 또는 여성경영진에 제한되었던 의사결정자의 성별 특성과 관련한 실증 연구의 범위를 감사를 대상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기업 이사회에 최소 1인의 여성이사 선임 의무화는 제도의 도입이 예정된 시점에서 관련 정책 도입의 필요성 및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생산적 논

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또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책임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있어서 감사의 성별과 감사위원회의 성별 구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론적 실무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많은 한계점을 가진다. 변수의 기초 통계량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사 선임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감사의 여성 비중이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 본 실증 결과의 해석 및 일반화에 주의가 요구된다. 비록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역의 관계를 고려하여 1년간의 시차를 둔 모형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본 실증결과는 여성감사의 선임과 기부금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지 못한 데에 기인될 수 있다. 더불어 실증 모형의 구성에 있어서 감사의 성별 특성 이외 감사의 여타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외국인지분을 등 소유구조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부족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참고문헌

- 고대영·김문태·윤순석(2007). “감사위원회 도입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이익조정 통제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제45권. 69-90.
- 김미옥·김기범·박경원(2017). “자발적 공시의 질과 기업지배구조 간 관련성 연구: 이사회 독립성과 감사위원회 설치 유무를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제73집. 287-306.
- 김용수·오용락(2017). “여성임직원비율과 여성직원 재직기간이 회계정보의 주가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8권 제4호. 173-193.
- 락정·조영곤(2019). “중국 상장기업 여성이사와 여성감사가 사회적 책임 활동에 미치는 영향”. *국제경영리뷰*. 제23권 제3호. 159-178.
- 매일경제(2019.07.25.). “국내 500대 기업 여성 임원 비율 3.6%…매년 소폭 증가.”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9/07/564102>에서 2020.05.25 인출.
- 박재형·이호영(2015). “상법상 감사의 특성이 공시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57권 제4호. 27-61.
- 박철형·조영곤(2020). “여성임원이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 *전문경영인연구*. 제23권 제1호. 47-61.
- 임자영(2018). “자발적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의 지분 구성 분석”.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Report*. 제8권 제11호. 10-17.
- 조영곤·유병우(2017). “중국 상장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경영리뷰*. 제20권 제4호. 105-126.
- Adams, R. B. & Funk, P.(2012). Beyond the glass ceiling: Does gender matter?. *Management Science*, 58(2), 219-235.
- Alonso-Almeida, M. M., Perramon, J. & Bagur-Femenias, L.(2017). Leadership style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Analysis from a gender perspective. *Business Ethics: A European Review*, 26, 147-161.
- Appuhami, R. & Tashakor, S.(2017). The impact of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on CSR disclosure: An analysis of Australian firms. *Australian Accounting Review*, 83(27), 400-420.

- Bond, M., Harrigan, N. M. & Slaughter, P.(2014). Sex composition of corporate boards and corporate philanthropy. *Voluntary Sector Review*, 5(3), 361-380.
- Borghesi, R., Houston, J. & Naranjo, A.(2014). Corporate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 CEO altruism, reputation, and shareholder interests.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26, 164-181.
- Bravo, F. & Reguera-Alvarado, N.(2019). Sustainable development disclosure: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eporting and gender diversity in the audit committee.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28, 418-429.
- Byron, K. & Post, C.(2016). Women on boards of directors and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 meta-analysis. *Corporate Governance: An International Review*, 24(4), 428-442.
- Eagly, A. H., Johannesen-Schmidt, M. C. & Van Engen, M. L.(2003). Transformational, transactional, and laissez-faire leadership styles: A meta-analysis comparing women and men. *Psychological Bulletin*, 129, 569-591.
- Finkelstein S, Hambrick D. C. & Cannella A. A. Jr.(2009). *Strategic 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on executives, top management teams, and boar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reene, W.(2002). The behavior of the fixed effects estimator in nonlinear models. *Working paper 02-05, Department of Economics, Stern School of Business, New York University*.
- Hambrick D. C. & Finkelstein S.(1987). Managerial discretion: A bridge between polar views of organizational outcome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9, 369-406.
- Haniffa, R. M. & Cooke, T. E.(2005). The impact of culture and governance on corporate social repor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24(5), 391-430.
- Huang, S.(2013). The impact of CEO characteristics on corporate sustainable develop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20(4), 34-244.
- Ibrahim, N. A. & Angelidis, J. P.(1994). Effect of board members' gender on corporate social responsiveness orientation. *Journal*

- of Applied Business Research*, 10(1), 35-40.
- Jamali, D., Safieddine, A. M. & Rabbath, M.(2008).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ynergies and interrelationships', *Corporate Governance: An International Review*, 16(5), 443-459.
- Jia, M. & Zhang, Z.(2011). Agency costs and corporate philanthropic disaster response: The moderating role of women on two-tier boards—Evidence from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2(9), 2011-2031.
- Kolk, A. & Pinkse, J.(2010). The Integr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isclosur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17(1), 15-26.
- Kim, H. A., Jeong, S. W., Kang, T. & Lee, D. Y.(2017). Does the presence of female executives curb earnings management? Evidence from Korea. *Australian Accounting Review*, 27(4), 494-506.
- Li, S., Song, X. & Wu, H.(2015). Political connection, ownership structure, and corporate philanthropy in China: A strategic-political perspective. *Journal of Business Ethics*, 129, 399-411.
- Mallin, C. A. & Michelon, G.(2011). Board reputation attributes and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US best corporate citizens.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41, 119-144.
- Manner, M. H.(2010). The impact of CEO characteristics on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Ethics*, 93, 53-72.
- Marquis, C. & Lee, M.(2013). Who is governing whom? Executives, governance, and the structure of generosity in large U.S. firm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4(4), 483-497.
- Marz, J. W., Powers, T. L. & Queisser, T.(2003). Corporate and individual influences on managers' social orient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46(1), 1-11.
- McGuinness, P. B., Vieito, J. P. & Wang, M.(2017). The role of board gender and foreign ownership in the CSR performance of

- Chinese listed firms.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42, 75-99.
- Mesch D. J.(2009). Women and philanthropy: A literature review. *Working paper 4/09. The center on philanthropy.* Indianapolis: Women's Philanthropic Institute at Indiana University.
- Navarro, P.(1988). Why do corporations give to charity? *Journal of Business*, 61(1), 65-93.
- Pucheta-Martinez, M. C., Bel-Oms, I. & Olcina-Sempere, G.(2016). Corporate governance, female directors and qua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Business Ethics: A European Review*, 25(4), 363-385.
- Schwartz, S. H. & Rubel, T.(2005). Sex differences in value priorities: Cross-cultural and multi-method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1010-1028.
- The Center for Women's Business Research(1999). Business women of achievement are independent philanthropists: members of women's business group are substantial givers. Press Release. 12. November.
- Thiruvadi, S. & Huang, H. W.(2011). Audit committee gender differences and earnings management. *Gender in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26(7), 483-498.
- Velte, P.(2018). Does gender diversity in the audit committee influence key audit matters' readability in the audit report? UK evidenc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Environmental Management*, 25, 748-755.
- Wang, Z., Reimsbach, D. & Braam, G.(2018). Political embeddedness and the diffus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actices in China: A trade-off between financial and CSR performance?.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98, 1185-1197.
- Williams, R. J.(2003). Women on corporate boards of directors and their influence on corporate philanthropy. *Journal of Business Ethics*, 42(1), 1-10.
- Wu, C., Guang, H., Xu, J. & Wang, S.(2019). The effects of female executives on corporate philanthropy in China.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Environmental Management, 26(3), 628-643.

Zhang, R., Rezaee, Z. & Zhu, J.(2009). Corporate philanthropic disaster response and ownership type: Evidence from Chinese firms' response to the Sichuan earthquake. *Journal of Business Ethics*, 91, 51-63.

Abstract

The Effects of Female Auditors on Corporate Philanthropic Expenditures in Korean Listed Firms

Jing Luo*·Young-Gon Cho**

Using 3,666 observations from 1,031 firms in Korean listed manufacturing firms during 2014 to 2018, the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female auditors on corporate philanthropic giving, based on literatures of cognitive psychology, behavioral economics and upper echelon that women are more ethical, altruistic and communal than men and that top managers' value, attitude and experience make effects on their decision making. The major findings as follow: Firs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existences of female auditors and the extent of corporate philanthropic giving. The relation remains significant in all models where the extent of corporate philanthropic giving is measured differently in terms of the ratio of value of company donations to sales and assets, and the amount of company donations per employee as well, suggesting that female auditors promote socially responsible practices due to their benevolent and communal traits as well as their social orientation. Secon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existences of female auditors and the extent of corporate philanthropic giving are dependent whether auditors are full-time employed or not, suggesting that when they are required to commit to their jobs fully, gender-based differences are realized. The results overall support that female auditors have positive effects on corporate philanthropic giving in Korean listed manufacturing firms.

These findings have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impact of female auditor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le practices including corporate philanthropic giving.

Keywords : Auditors, Female Auditors, Audit Committee, Philanthropic Expenditures, Donati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First author: Doctoral student, Dept. of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Sang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Sangmyung University